

인쇄하기

인쇄하기 상단기

全羅日報

HOME 사람들 일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 모범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 전달

2020년 08월 12일 (수) | 김용 기자 | km4966@daum.net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강종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하고있는 도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전달식은 ㈜아오아오의 대표이자,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인 신세웅 대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첸씨(31·여)와 구오씨(30세·여)가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이들은 중국인 유학생들로 현재 전주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신세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후원 행사를 마련했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종대 회장은 "유학생들도 힘든데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16년 3월 법률과 의료, 교육, 복지,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협의회를 발족, 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김용기자·km4966@

김용 기자 km4966@daum.net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지방 > 전북

장학금 받은 외국인 유학생 “따뜻한 사랑, 감사합니다”

전주출입국 사회통합협의회, 외국인 유학생에 장학금 전달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20-08-12 17:22 송고



사회통합협의회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을 전달했다.(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뉴스1

외국인 유학생들을 생각하는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협의회(회장 강종대)의 따뜻한 마음이 올해에도 이어졌다.

사회통합협의회는 12일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전달식은 (주)아오아오의 대표이자, 사회통합협의회 위원인 신세웅 대표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첸씨(31·여)와 구오씨(30·여)가 각각 10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았다. 중국인 유학생들인 이들은 모두 현재 전주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한국과 중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신세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이번 후원 행사를 마련했다. 작은 정성이지만 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하고 싶다”며 격려했다.

강종대 회장은 “유학생들 자체도 힘든데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016년 3월 법률과 의료, 교육, 복지, 홍보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협의회를 발족, 이주여성 및 체류외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결혼이민자 고향나들이 방문 지원과 의료 봉사 등은 물론이고 매년 장학금 전달식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